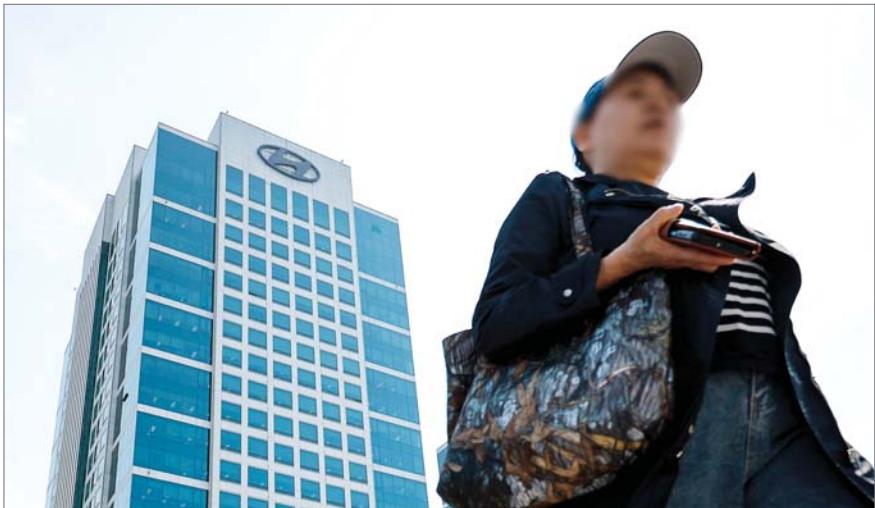




현대차, 1분기 매출액 역대 최대
현대차가 24일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 했다. 공시에 따르면 현대차 1분기 매출은 44조4077 억원으로 전년 동기(40조6585억원) 대비 9.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6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 다 2.1% 증가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관련기사4면> /뉴시스

아이파킹 IPO 시동 ‘SK 플랫폼’ 큰 그림

올해 3분기 주관사 선정 돌입
SK(주), 상장 위한 TFT 구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 기대

스마트 주차 플랫폼 ‘아이파킹’이 2027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올해 3분기 주관사 선정에 돌입한다. 현재 아이파킹은 SK(주)와 NHN이 공동 대주주로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SK(주)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점차 커진 만큼, 상장 작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파킹은 2027년 상장을 목표로, 올해 3분기 주관사 선정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파킹은 지난 2월 사명 변경과 함께 IPO 계획을 공식화했고, 이후 일부 개인주주들의 질의에 “2027년 IPO를 목표로 올해 중 주관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공식 회신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주관사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K측은 아이파킹 상장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했으며, 기술특례 상장을 포함한 다양한 상장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PO 추진의 주도권이 사실상 SK(주)로 넘어간 정황도 다수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IPO 추진 초기에는 공동 대주주인 NHN과의 의견차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SK(주)가쏘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모빌리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점, 그리고 아이파킹을 이를 연결할 핵심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IPO를 주도하게 된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SK(주)는 이미 전기차 충전 1위 기업 ‘시그넷이브이’를 인수해 ‘SK시그넷’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IPO를 통해 아이파킹과 전기차 충전 사업을 결합한 통합 플랫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아이파킹의 고객 기반인 SK월더스와의 연계를 활용해 주차장 운영 및 스마트 시티 인프라 확장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아이파킹은 지난해 창사 이래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측면에서도 IPO 동력을 확보했다. 올해 예상 매출은 약 1조960억 원, 영업이익은 약 98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상장 후 기업가치는 약 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최근 시리즈 투자 당시 기업가치 대비 약 9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시장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상장 시기는 빠르면 2026년 하반기, 늦어도 2027년 상반기 내로 접어들며, IPO를 앞둔 3분기 내 주관사 선정이 유력하게 전망된다. 현재 SK(주) 및 NHN과 연결 고리를 가진 주요 증권사들과의 접촉도 진행 중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SK측이 아이파킹 IPO를 사실상 이끌 것으로 본다”며 “양사가 현재는 동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IPO 과정에서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관사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NHN 또는 SK(주)와 인연이 있는 증권사가 유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PO를 진행하면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편의점 물가 줄인상... 생필품까지 번졌다

생리대 소피제품 최대 10% ↑
생산비 늘자 가격 압박 못피해

편의점 내 가격 오름세가 식품을 넘어 생필품까지 번졌다. 대표 생필품인 생리대까지 일제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체감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내 커피·라면·삼각김밥 등 먹거리 물가 상승에 이어 내달부터는 일부 생리대 가격도 인상된다.

대표적으로, 소피 생리대 경우, 일부 품목 기준 약 10%가량 가격이 오른다. ‘소피 볼록맞춤 중형’ 제품이 7600원에서 8400원으로 10.5%가량 상승하고, ‘소피 순한면 슈퍼통’이 4200원에서 4500으로 약 7% 인상된다.

이 외에도 ‘소피 유기농(중형) 오가닉’ 제품이 2900원에서 3100원으로, ‘소피 내몸에 순한면 대형’ 제품이 3200원에서 34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물가 인상 기조가 식품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필품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단행된 편의점 내 가격 인상은 주로 식음료 품목 위주였다.



한 편의점 매장 내 가격이 오른 껌 제품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손진영 기자

최근 최소 900원 대를 유지하던 삼각김밥 제품이 1500원으로 올랐으며, 일부 대형 사이즈 삼각김밥은 2000원을 넘어섰다.

대부분의 과자류 역시 1700원 대로 올랐으며, 심지어 후라보노, 주시후레쉬, 후레쉬 민트 등 껌 제품이 각각 1200원 가량 상승했다. 편의점 대표 음식이라 불리는 컵라면 일부 제품과 아이스크림 역시 가격이 올랐다.

탄산음료도 내달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코카콜라는 내달부터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조지아 등 일부 품목 출고가를 5.5%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식품에 이어 생필품까지 가격 압박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120.32로 전월 대비 포함세를 보여왔지만, 지난해 10월(119.01)부터 지난 2월(120.33)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에서 지난 3월(116.29)까지 증가했다.

소비자이모씨는 “평소에 가볍게 편의점을 이용했으나, 이제는 어지간한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 올랐다”며 “생리대 같은 경우도 급하게 필요할 때, 편의점에 들러 종종 부담 없이 구매했는데 가격이 올라 선풍 사기가 망설여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리대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입점 편의를 위해 구제품 코드와 신제품 상품 코드를 구분 없이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가격이 오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실제 진열 제품이 바뀌었거나 다른데, 매장 시스템상으로는 가격 인상처럼 보이는 오해가 빚어지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韓경제 뒷걸음질... 1분기 성장률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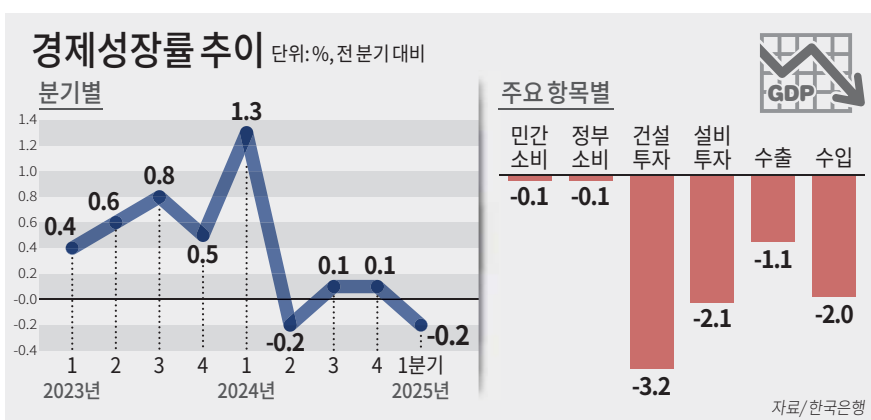
내수 부진에 수출까지 둔화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1~3월)에 역성장했다.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마저 둔화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으로 0.1% 성장에 그친데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내총생산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으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더한 값이다. 국내총생산은 주로 경제성장률의 지표로 사용된다.

이동원 경제통계2국장은 “1월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조업일수가 줄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3월 개선될 줄 알았다”며 “정치적 불확실



정도가 이전에 비해 길어지고 3월 관세 정책 예고로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 성장률 이끌었던 수출, -1.1%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는 서비스 소비(오락·문화, 의료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이 국장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계들이 가전제품, 가구 등의 내구재를 교체했다”며 “신발, 식료품 등 준내구재 가격은 상당폭 올라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구재 교체시기가 다가오거나 준내구재의 가격안정이 민간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며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전기(-4.5%)대비 감소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3.2%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국장은 “지난해 2분기부터 건설투자가 경제성장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올해 1분기에도 PF부실과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 위축, 한파, 폭설 등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워지면서 역성장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GDP 성장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2분기 -0.3% ▲3분기 -0.5% ▲4분기 -0.6% 올해 ▲1분기 -0.4%로 경제성장률을 낮췄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韓 대행 “산불 2차 피해 예방 선제적 조치 과할 정도로 하라”
▲이재명 “호남은 국가 보루”... AI·에너지로 호남경제 부흥
/사진 뉴시스

▲행안위 공방... 민주 “尹 내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안 돼” 국힘 “민주 예산삭감 탓 산불 대응 못 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 “추경 필수 사업 위주 편성... 국회 대안 적극 검토”

▲황교안 “나경원 탈락할 수 없어... 국힘 경선도 조작됐다”
▲친유승민계 권오을, 이재명 캠프 합류... 李 “가능한 많은 분 영입”